

환경미래도시 기타큐슈시

매연이 자욱한 하늘, 죽음의 바다에서 기적의 부활

기타큐슈 지역은 일본 4대 공업지대의 하나로서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일본의 근대화와 고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번영은 한편으로 심한 공해를 가져왔습니다. 1960년대 기타큐슈 지역의 대기오염은 국내 최악을 기록, 도카이만은 공장 폐수로 인해 '죽음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공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가장 먼저 일어난 분들은 자녀의 건강을 걱정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주민운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가 공해에 대한 사회의 문제의식을 고취시켰고, 기업과 행정기관의 공해 대책 강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시민, 기업, 행정기관의 협력 대응을 통해 환경은 급속하게 개선되었고, 1980년대에는 환경 재생에 성공한 기적의 도시로서 국내외에 소개되었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하늘(1960년대)



다시 찾은 파란 하늘(현재)



대장균조차 살 수 없던 오염된 도카이만(1960년대)



다시 깨끗해진 도카이만(현재)

세계로 뻗어가는 환경 협력의 네트워크

기타큐슈시의 우호도시인 중국 다렌시 등과의 환경 협력을 통해 세심한 케어와 지역 주민과의 협동에 의한 협력활동 등, 지역 차원에서의 국제협력의 유효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타큐슈시에서는 도시 대 도시의 협력활동을 더욱 추진하기 위해 도시간 네트워크를 제안·실현하여 가맹 도시간의 환경협력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가맹 각 도시에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환경선진도시'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OECD '그린 시티 프로그램'의 모델 도시로 선정

2011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도시의 그린 성장 모델(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도시 발전 모델) 도시로서 시카고, 파리, 스톡홀름과 함께 저희 시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앞으로 OECD를 통해 전 세계에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세계의 환경 수도'의 도시 브랜드 구축 등으로 이어 나갈 것입니다.

'환경미래도시'로 선정

2011년 12월 22일, 일본 정부에서 환경미래도시 선정 결과가 공표되었고, 저희 시가 제안한 '기타큐슈시 환경미래도시'가 전국 11개 지역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환경', '초고령화', '국제화' 등의 과제에 대응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활력 넘치는 도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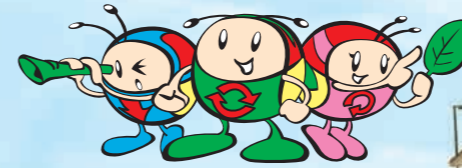
(우)805-0071 기타큐슈시 야하타히가시구 히가시다 2초메2-6
TEL. 093-663-6751 FAX. 093-663-6753
<http://eco-museum.com>



リサイクル適性 (A)
이 인쇄물은 인쇄물
중요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No. 1211017B

北九州市 環境 ミュージアム

KITAKYUSHU ENVIRONMENT MUSEUM



- 개관시간
9시~17시 (전시 부분) ※입장 마감 16시 30분
9시~19시 (정보 라이브러리·재사용 코너 등)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7시까지
- 휴관일
월요일 및 연말연시

기타큐슈시는 옛날부터 제품생산을 기반으로 한 산업도시로서 번창해 왔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공해 대책과 공해 극복의 경험을 살린 환경 국제협력, 순환형 사회 만들기, 시민 환경활동 추진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환경 문제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8년 기타큐슈시는 '환경 모델 도시'로서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또 201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그린 시티 프로그램의 모델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기타큐슈 시민들이 걸러온 '시민 환경력'을 발휘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과 도시 활력 증대를 동시에 개척해 나가고, 그 성과를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도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의 환경력'입니다.

환경 박물관은 세계 환경 수도를 지향하는 기타큐슈시가 정비한 '환경학습·교류 종합 거점 시설'입니다.

환경 박물관의 3가지 기능

환경학습센터의 기능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환경학습 장소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깨닫고, 배우고, 판단하고, 행동해 나가는 환경 리더의 육성'을 지원합니다.

환경정보센터의 기능

NPO, 기업,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환경 이벤트 등을 비롯하여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 세계의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환경활동센터의 기능

기타큐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NPO와 시민 그룹의 활동 거점으로써 집회나 미팅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

자동차 기타큐슈 도시고속도로 '오타니'에서 빠져 나와 3호선 '하루노마치 5초메'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 철 'JR 스페이스월드역'에서 도보 5분

기타큐슈시의 환경학습 · 교류 종합 거점



프롤로그

기타큐슈시는 산업도시로서 발전하여 공업 이미지가 강하지만, 시 면적의 40%가 삼림이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자연이 아름다운 도시이다. 시의 중심으로는 강이 흐르고 스오나다에는 광대한 간석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아름다운 자연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제1존 기타큐슈시의 변천

기타큐슈시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관영 야와타제철소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세워 일본의 경제성장에 크게 공헌해 왔다. 그 역사와 함께 기타큐슈 시내의 공장에서 사용 해 온 석탄, 철광석 등의 원료와 공업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제2존 공해 극복의 역사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 기업 · 대학 · 행정기관이 각각 공해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 공해에 대한 시민들의 노력



- 도바타 지구의 '부인회'에서는 세탁물이 이상하게 오염되는 것을 보고 대기오염을 우려하여 대학교수에게 조사방법 등을 배웠다.
-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와 기업을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 '파란 하늘을 보고 싶다'라는 8mm 영화를 제작하여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 기업의 대응



- 오염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업은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형 생산 공정으로의 전환(클리너 프로덕션) 도입을 통해 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큰 폭으로 저감하였다.
- 배기가스 처리 및 배수 처리 등의 오염방지대책을 실시하였다.

■ 행정기관의 대응



- 환경 감시, 공장 지도, 환경개선계획을 책정.
-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도카이만의 준설을 실시하였다.
- 공공 하수도의 정비, 완충 녹지의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공해 극복을 통해 쌓아온 기술 · 노하우를 세계에

■ 국제연수



- 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JICA)와 공익재단법인 기타큐슈국제기술협력협회(KITA) 등과 협력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수 인원을 받아들여 대기 정화 연수, 수질 개선 연수 등의 공해 대책부터 에너지 절약 연수와 저탄소 사회 만들기 연수 등을 실시하였다.

■ 환경 기술에 의한 국제 협력



- 개발도상국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폐기물 관리 추진사업을 실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에서는 2만 세대에서 활용되어 약 30%의 쓰레기 감축으로 이어졌다.
- 캄보디아에서는 누수 등의 수도사업에 관련한 기술 협력과 인재 육성을 실시하였다.

■ 국제 표창



유엔 자치단체 표창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수상)

글로벌 500 (1990년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수상)

캄보디아 훈장 (2011년 기타큐슈 수도 100주년 기념식전에서 수상)



제3존 지구 환경과 우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어트랙션.

지구가 좁다!?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EF)의 개념을 저울을 사용하여 학습.



무슨 원소?

화석연료나 재생 가능 에너지 등 에너지의 원소를 사다리타기를 통해 학습.



일본 정식?

식재료 고르기에 따라 푸드 마일리지 변화하는 것을 도시락 만들기를 통해 학습.



인간과 물

시민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을 페트병 조형물로 표현.



물의 순환을 수동 볼 코스터 장치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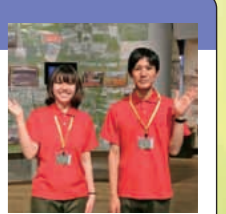
제4존 환경 기술과 에코 라이프

3R (Reduce·Reuse·Recycle)과 자원 순환의 개념을 배우는 존. 자원화물이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과 에코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환경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에코 라벨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



가이드

방문객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5존 기타큐슈시 환경미래도시

'기타큐슈시 환경미래도시'에 대한 대응을 '스마트 커뮤니티 창조 사업'과 '아시아 저탄소화 센터', '물 비즈니스', '시민·단체·기업·학교의 환경활동' 등의 사진을 중심으로 소개.



환경학습 서포터

'즐기면서 배우는 환경교실'을 개설하여, 환경 문제를 재미있고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풍력 발전



■바람 렌즈 풍차 (발전량 3kw/h) 발전한 전력은 박물관에서 사용

벽면 녹화



■덩굴식물 외벽을 덮어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집 안에 열이 머무르지 않도록 하고 있다.

폐자재의 이용



마루에는 건설공사 때 목수가 발판으로 사용하는 목재를 재이용.

빗물의 이용



돌 시어터의 지하에 빗물을 모아두는 저수조가 있으며, 화장실의 세정수로 이용.

에코 하우스



사람이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주택.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쿨 튜브 등을 정비.